

매일 만나

2023. 2.

디도서, 빌레몬서, 시편



원주중부교회 큐티집

"QT 매일 만나" 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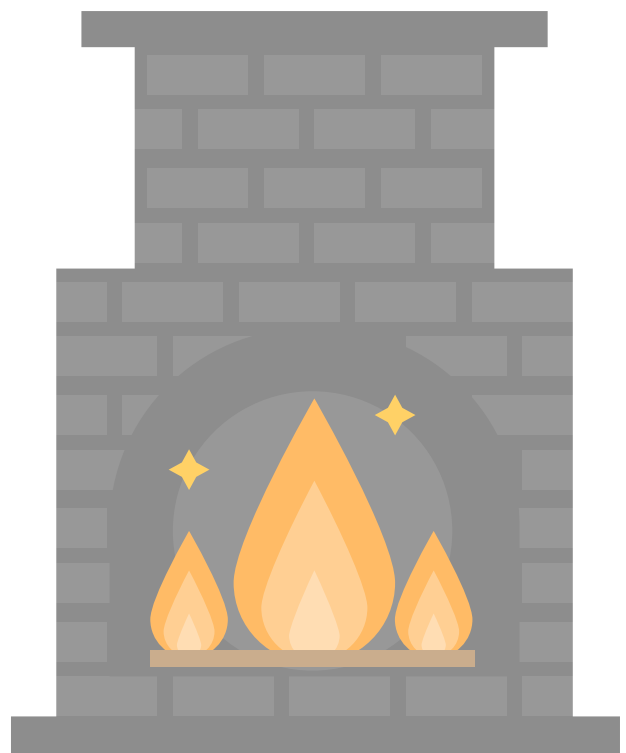
Quiet Time 의 첫글자인 **경건의 시간, 묵상의 시간**입니다.

매일 만나는 광야 같은 인생길에 늘 동행하시며,

날마다 말씀으로 영의 양식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이름처럼 **날마다 하나님과 만나**는 깊은 교제로

은혜를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2

2023 FEB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주일·SUN

월·MON

화·TUE

수·WED

목·THU

금·FRI

토·SAT

5

정월 대보름
이단관계주일 / 전교인 주일성수의 날
2-4남전도의 헌신예배
원반기 제자교육 신장기간 5일(주일) - 29일(주일)

12

전도단·전도대 발대식
권사회·전도회 연합월례회

19

우수
복음전도대회① / 제자교육특강①
새가족부 월례회

26

새가족 수료식 / 정기당회
장학금 전달식

6

1,16

13

1,23

20

2,1
39차 교사대학
20일(월) - 22일(수)

27

2,8

7

1,17

14

호스피스 집중사역주간
14일(화) - 17일(금)

21

2,2
연합중보기도

28

1/4분기 신앙성당기간
28일(화) - 2일(목)

1

1,11
전교인 새벽성찬
장권안 연합기도회

8

1,18

15

1,25

22

재의 수요일

2

1,12

9

1,19

16

12월년부 동계수련회
16일(목) - 18일(토)

23

2,4

3

1,13
유년부 초등부 겨울성경학교
3일(금) - 4일(토)

10

1,20

17

1,27

24

2,5

4

입춘

11

1,21

제18기 결혼예비학교 개강

18

1,28

25

2,6



Holy Bible survey

디도서

1. 저자

디도서는 1절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수신자인 디도에게 보낸 편지이며, 디도의 이름을 따라 이름이 붙여진 것으로 헬라어 명칭은 『프로스 티톤』이며 '디도에게'라는 뜻입니다. 사도행전에는 디도에 대한 언급이 전혀 나오지 않지만 바울이 기록한 서신들에는 13번이나 디도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 같은 사실로 디도가 바울의 가장 신임 받는 동역자였음을 알 수 있고, 또 디도는 바울의 전도를 받고 회심한 수리아 안디옥 출신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행11:26). 사실 디도는 헬라인 기독교 신자로서 할례는 받지 않았으나 안디옥 교회의 회원으로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예루살렘 총회에 참여한 것으로 보아 이미 상당한 기간 동안 신앙 생활을 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갈 2:1~5). 디도가 사역한 그레데 섬은 지중해에 위치한 곳으로 '그레데 사람처럼 거짓말하는 자'라는 관용구가 생겨날 정도로 거짓과 부도덕이 성행하였습니다. 그레데 교회 역시 교회 내의 질서 확립과 바른 신앙관의 정립이 시급할 정도로 상당히 혼란스러웠고 믿음의 선한 행위가 없었습니다(딤후 1:10~13; 2:1~10). 바울은 이처럼 어려운 상황에서 목회 사역을 담당하고 있는 디도에게 신앙인의 교회 생활과 사회생활의 규범을 제시하여 디도를 격려하고 또 권면하기 위해 A.D. 66년경 이 편지를 기록하였습니다.

2. 기록목적

바울의 목적은

1. 디도를 자신에게 빨리 오게 하기 위함이며,
2. 율법학자인 세나와 아블로를 먼저 보내 그레데 교회에 영적인 궁핍함이 없게하고,
3. 어렵게 목회하고 있는 디도를 격려하고 권면하기 위함입니다.

그레데 교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살아야 할 생활에 대하여 실제로 보여주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특히 '선한 생활'(딤후 1:16)이라는 주제를 비교적 짧은 본 서신에서 6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딤후 1:16; 2:7,14; 3:1,8,14). 이것은 성도가 은혜로 주어진 선한 생활이 실제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도록, 선한 생활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말씀에 의지하는 삶을 권면하고 있습니다(딤후 2:14; 약 2:14,17).



Holy Bible survey

빌레몬서

1. 저자, 기록장소, 시기

빌레몬서는 바울이 기록하였으며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와 함께 옥중 서신으로 분류되는 서신이다. 골로새서와 동시에 기록되었고 수신지 또한 같다.

2. 기록목적

골로새 교회의 지도적 인물인 빌레몬에게 개인적으로 보내는 편지이다. 오네시모라고 하는 한 종이 주인 빌레몬에게 해를 끼치고 도망갔는데 이는 로마법에 의하면 사형에도 처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오네시모가 로마까지 도망했다가 바울을 만나 회심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바울은 오네시모를 다시 돌려보내면서 빌레몬에게 그를 용서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로 받아줄 것을 호소하며 편지를 보낸것이 빌레몬서이다.



Holy Bible survey

시편

1. 특성

시편은 기도와 찬양, 그리고 묵상의 모음집이기 때문에 성경 중에서도 특별한 위치를 차지한다. 성경의 이야기체 문학인 오경과 역사서들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행동을 보여 주며 예언서들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 이에 비해 시편은 하나님의 행동과 말씀에 대한 고대 이스라엘인이라는 사람들의 응답에 해당된다.

2. 구조

우리가 시편을 살펴볼 때 시편 배열에 어떤 일관성 있는 원리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제럴드 월슨은 (1)저자의 이름, (2)고대 장르의 이름, (3)용도에 대한 지시사항 그리고 (4)특정 시편의 역사적 배경설명 등이 시편의 전체적 구조를 짜는데 도움을 주고 있음을 찾아내고 있다.

(1) 제1권

제1권은 엄밀하게 시편 3편으로 시작하여 41편으로 마친다. 토라 시편으로 알려진 시편1편은 시편 전체의 서론이며 시편 전체를 열어주는 관문이다. 제왕시인 시편 2편은 시편 전반부를 짜는데 72편, 89편의 서론으로 주어졌다. 제1권은 첫 여호와 시편으로, 주로 다윗의 시들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에 있는 다윗의 시들은 다윗의 생애에 있었던 중요한 사건들과 연관되어 표제에 소개된다. 3편은 '그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편' 7편은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대하여 여호와께 한 노래', 18편은 '주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와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날에 한 노래', 34편은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로 소개되어 있다. 표제에 담긴 역사적 배경이 시편 자체의 내용과는 무관하게 보이는 것이 있지만 표제는 첫 해석이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표제에 나타난 배경은 시편을 해석할 수 있는 첫 발판을 마련해 줄 것이다.

01

수요일

은혜와 평강이 네게 있을지어다

디도서 1:1-4

새찬송가 412장

- 1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 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 2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 3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 4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네게 있을지어다

말씀 암송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좇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원하노라. (롬1:7)



1~4절 전도는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디도서는 데모데전후서와 더불어 그레데에서 목회하던 디도에게 목회 사역의 지침을 전달하기 위해 바울이 쓴 목회서신입니다. 시작부터 바울은 주님께 받은 복음의 진리를 모든 사람에게 전파하라는 전도 명령이 디도에게도 부여된 것임을 밝히며, 온전히 사명을 감당하도록 사명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더욱이 4절에서 디도를 향하여 참 아들이라는 표현으로 디도가 바울이 직접 전도하여 복음으로 양육한 자이며, 신뢰하는 믿음의 동역자인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성도는 복음 안에서 구원의 은혜와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복음으로 택하여 부르신 사명에 충성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02

목요일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디도서 1:5-9

새찬송가 289장

5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 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6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7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8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9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 암송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딤후 2:2)



5~9절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말씀의 가르침을 지켜야

장로는 교회의 영적 지도자입니다. 장로를 세우는 일은 디도가 그레데에서 해야 할 임무 중의 하나였습니다. 이것으로 장로 제도가 초대교회에도 있었으며, 교회의 질서 가운데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행 14:23; 20:17). 장로의 직분을 감당할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갖추어야 할 윤리적인 자질이며 그리스도와의 교제 가운데 드러나는 성품, 결백하고 흠잡을 데 없는 사람으로, 한 아내만을 두고 생활의 정결함이 타인에게 모범이 되어야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로 가정을 돌보는 가장의 지도력과 인격을 자녀들의 모습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는 남을 다스리기 이전에 자신과 가정을 바르게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사람으로 좋은 교훈과 본을 보이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복음의 리더로서 스스로와 가정에 본이 되지 못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03

금요일

네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디도서 1:10-16

새찬송가 357장

- 10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11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12 그레데인 중의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13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네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14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15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 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16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말씀 암송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네가 좇는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딤후 4:6)



10~16절 명절로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더라

그레데 인들은 불순종하며, 헛된 말과 속임수로 더러운 이득을 취하는 온갖 악덕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 할례주의자(할례를 받았고, 할례가 하나님 앞에서 의를 확증해 준다고 믿었던 이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들은 복음의 가르침에 순종하지 않고, 잘못된 교훈들을 가르쳐 가정과 교회를 미혹하며, 불신과 반목을 일으켜 분쟁과 다툼을 일으켰습니다. 이는 가정을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지금도 이단들의 가장 큰 특징은 가정을 파괴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그들의 입을 막고,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이 말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유죄임을 선언하며, 호되게 나무라도록 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책망은 고통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여 돌이켜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서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죄에 대하여 어떠한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까? 죄를 엄하게 끊어내거나 경계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04

토요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디도서 2:1-10

새찬송가 368장

- 1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 2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 3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 4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 5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 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 6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 7 범사에 네 자신이 선한 일의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 8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 9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 10 흠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말씀 암송

범사에 네 자신이 선한 일의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딤후 2:7,8)



본문설명

사도 바울은 여러 다양한 신자들을 '어떠한 방향으로 양육할 것인지'와 그 이유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늙은 노인은 '이제 얼마나 살겠다고'하는 생각에 언행을 마음대로 구사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절제와 경건, 거룩 등이 요구됩니다.

아울러 바울은 가정의 중요성, 젊은이들에 대한 교훈 등을 언급하며,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노인들이 젊은이들을 교훈하는 모습이 점차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상에 적절히 대처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05

주일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디도서 2:11-15

새찬송가 93장

11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12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13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14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5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말씀 암송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엡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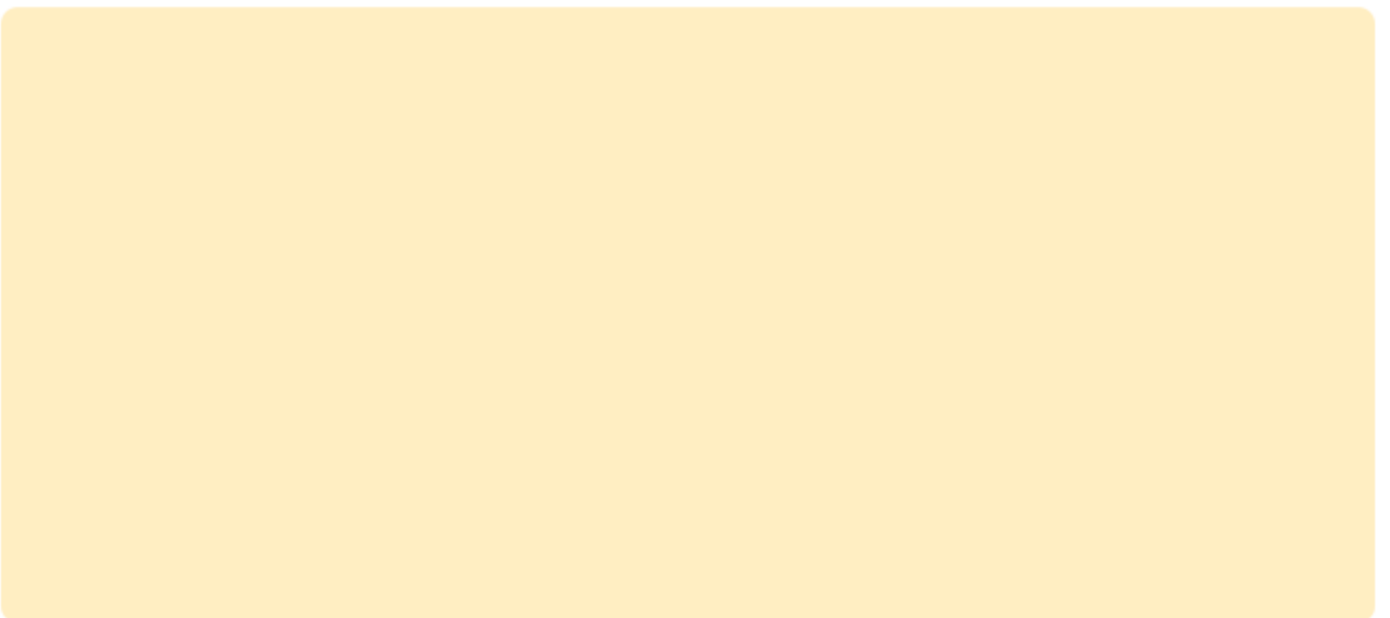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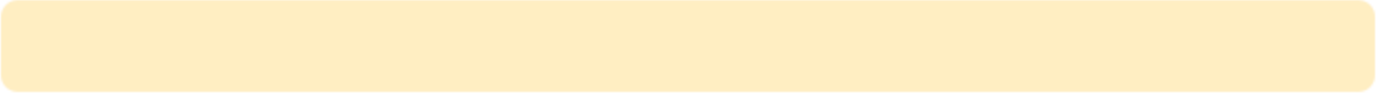
본문설명

모든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데,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집니다(엡 2:8). 또한 내세의 소망을 갖게 되는 것과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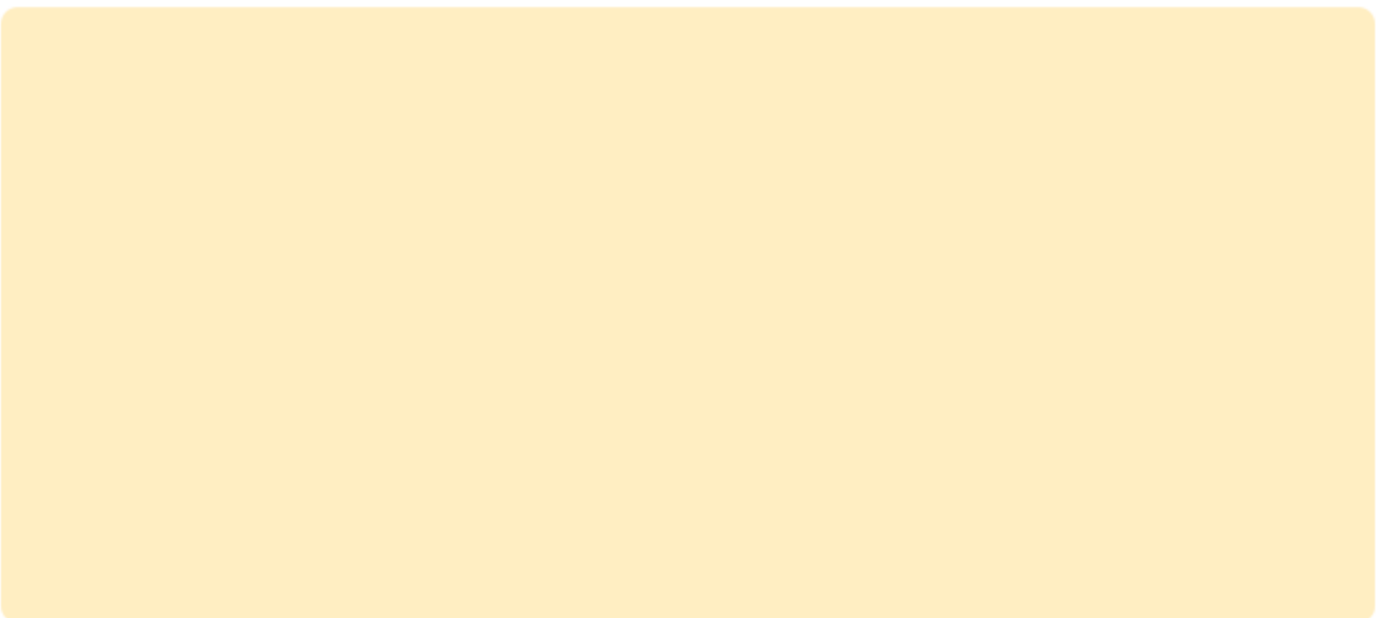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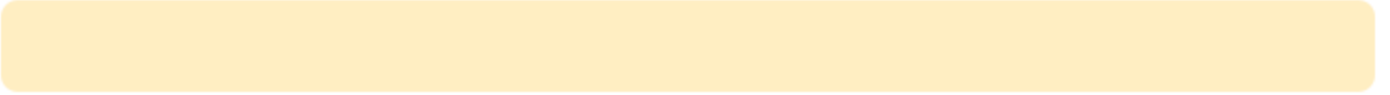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은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설교 노트〉



〈설교 노트〉



06

월요일

너는 이 여러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디도서 3:1-8

새찬송가 94장

- 1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 2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에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 3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 노릇 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 4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 5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 6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사
- 7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 8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말씀 암송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딤후 3:6,7)



본문이해

본문설명

바울은 모든 성도들에게 세속 정부에게 순종해야 한다고 교훈하며, 모든 불신자들에게 그리스도의 관용이 나타나게끔 행동하라고 합니다. 이것은 맹목적이거나 굴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평안한 신앙생활과 전도의 문을 넓히기 위함입니다.



적용질문

교회와 국가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07

화요일

어리석은 변론과 다툼은 피하라

디도서 3:9-11

새찬송가 240장

9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10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11 이러한 사람은 네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9-11절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9-11절은 바울이 2-3장에 걸쳐 성도들을 유익하게 할 바른 가르침을 유익한 것으로 적극 권장했던 것과 달리 거짓된 가르침을 무익한(9절) 것으로 엄중히 경계합니다. 무익한 가르침이란 어리석은 변론, 족보 이야기, 분쟁, 율법에 대한 다툼 등입니다. 이런 종류의 가르침은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따라서 분열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한 두 번 권고한 후에 듣지 않으면 멀리하라는 것은 당연한 경계였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경계해야 할 거짓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08

수요일

믿음 안에서 너도 문안하라

디도서 3:12-15

새찬송가 330장

- 12 내가 아데미나 두기고를 네게 보내리니 그 때에 네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 13 율법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 14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 쓰기를 배우게 하라
- 15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네게 문안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문안하라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말씀 암송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 쓰기를 배우게 하라(딤후 3:14)



12-15절 믿음 안에서 너도 문안하라

12-15절에서 바울은 여러 사람들의 이름을 열거하면서 다른 서신서와 마찬가지로 개인적인 당부들로 서신을 끝맺습니다. 특히 15절에 '은혜'로 마무리하는 것은 의미심장합니다. 이 글의 시작이 은혜(1:4)였고, 핵심적 권고들이 은혜에 기반을 두며(2:11), 마지막 권고도 은혜입니다.

죄악이 창궐하던 시대에 하나님의 대안 공동체로서 가정과 사회에서 선한 행실을 드러낼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강해지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음을 역설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있습니까?

09

목요일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빌레몬서 1:1-7

새찬송가 364장

- 1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 2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 3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 4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 5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 6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 7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말씀 암송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빌1:6)



1-7절 내가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빌립보서의 첫째 단락은 '내가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노라'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처해 있던 어려운 형편을 생각해 볼 때 처음부터 감사의 말을 하는 것에 놀라움을 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빌립보서에서 그가 당한 어려움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그는 빌립보서를 기록할 때 자유로운 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매여있음을 4번이나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를 오해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울의 권면을 대적했고, 그의 신앙을 멸시했으며, 바울의 복음에 원수가 된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빌립보서의 첫 마디에 '나는 감사하노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진정한 모습이며 성도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감사는 어디에 기반을 두고 있나요?

10

금요일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빌레몬서 1: 8 - 25

새찬송가 249장

- 8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네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 9 도리어 사랑으로써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 10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네게 간구하노라
- 11 그가 전에는 네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네게 유익하므로
- 12 네게 그를 돌려 보내노니 그는 내 심복이라
- 13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네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 14 다만 네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 것도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 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 15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 16 이 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 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네게랴
- 17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 18 그가 만일 네게 불의를 하였거나 네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 19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네가 이 외에 네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 20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 21 나는 네가 순종할 것을 확신하므로 네게 썼노니 네가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 22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 23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 24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 25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말씀 암송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몬1:25)



바울의 호소

바울은 오네시모에 관해 호소한다고 밝힌다. 세부 내용을 언급하지 않으면서,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어떻게 상처를 입혔는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낸다(8-12절). 탄원의 전 반부는 사랑하라는 호소로 시작하고 마무리된다(9절). 후반부에서는 그가 빌레몬이 어떻게 하기를 바라는지 이야기하고, 오네시모의 비행과 하나님의 섭리를 연결한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노예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로 맞이할 것을 당부한다(15-16절). 바울은 자신의 탄원을 뒷받침하기 위해 빌레몬이 당했을 모든 손해를 갚아주겠다고 약속한다(17-20절).

25절

'은혜' 이 편지를 여닫는 말이다. 바울은 빌레몬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베푸신 바로 그 은혜를 오네시모에게도 베풀어 주기를 기대한다(3절).

'너희 심령' 복수형. 바울은 온 교회의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기를 기원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받은 은혜를 베풀(용서, 인내 등) 것에 대해 생각해봅시다.

11

토요일

복 있는 사람은

시편 1:1-6

새찬송가 89장

- 1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 2 오직 여호와와 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 3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 4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함이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 5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 6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말씀 암송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시1:3)



1편 형통의 열쇠: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내림

이 시는 의인의 길(1-3절)과 악인의 길(4-5절)을 간결하게 대비시키며, 두 길에 대한 간명한 요약으로 끝난다(6절). 의인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3절)와 같고,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4절). 악인의 삶 속에는 하나님 말씀(1-3절의 초점)이 없다(4-5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언급하지 않는다). 1편은 하나님의 말씀(히. '토라'. 곧 율법/가르침)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어떤 학자들은 이 시를 '지혜시'로 분류한다. 그러므로 이 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내리는 것이 곧 형통하는 인생임을 가르쳐 준다.



형통의 열쇠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나는 어떤 태도로 열심을 내고 있습니까?
무너진 말씀생활을 더 견고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봅시다.

12

주일

너는 내 아들이라

시편 2:1-12

새찬송가 304장

- 1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 2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 3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 버리자 하는도다
- 4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 5 그 때에 분을 발하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 6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 7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 8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네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 9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림이여 질그릇 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 10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 11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 12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말씀 암송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시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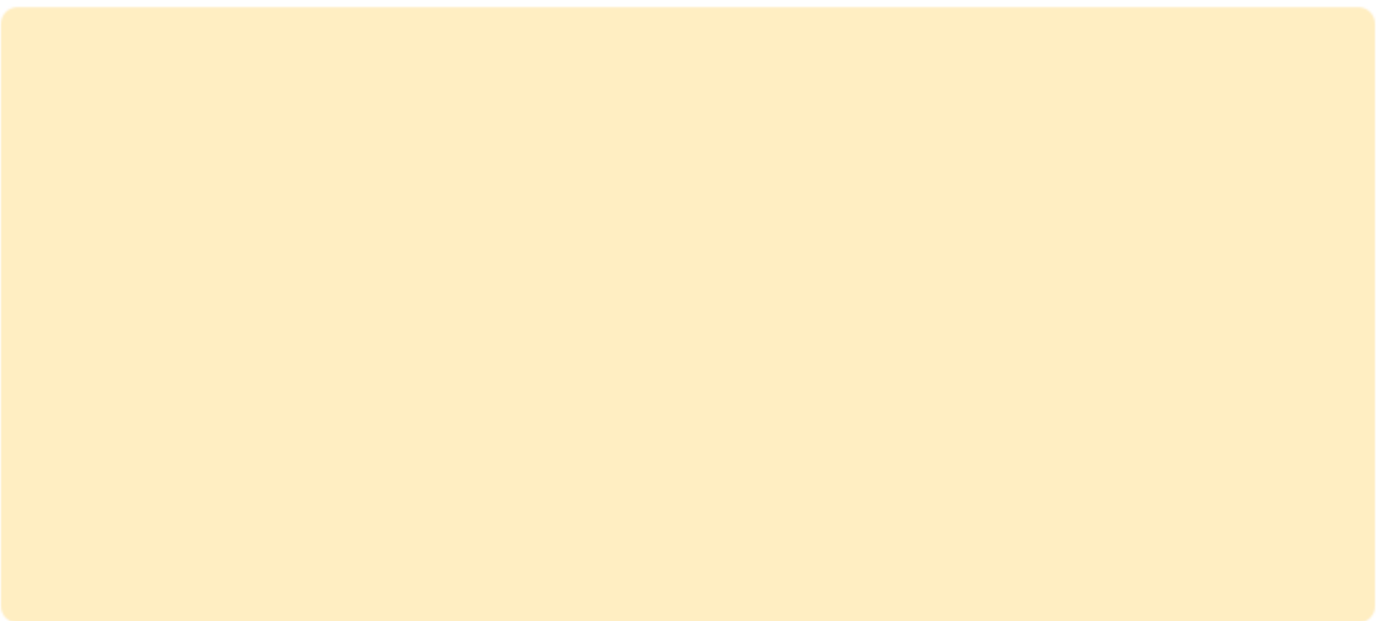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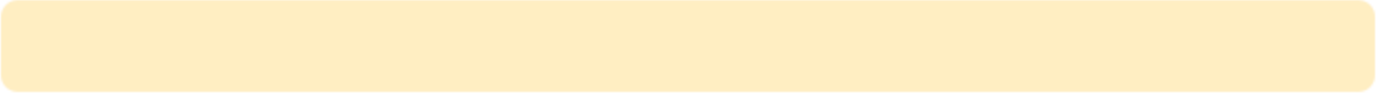
2편 형통의 열쇠: 여호와를 섬기고 그분의 아들에게 입 맞추라

이제 초점은 나라와 민족들의 차원으로 바뀌어, 여기서는 형통의 열쇠가 위대한 왕이신 하나님과 그분의 기름 부음을 받은 아들에게 복종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이 시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약속(삼하7장)과, 위대한 '다윗의 자손'(마1:1)이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기름 부름을 받은 자)에게 하신 약속을 되돌아보게 한다. 시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네 부분으로 나뉘어진다. 나라와 민족들이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왕)'를 대적한다(1-3절). 여호와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며, 그분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을 시온에 세우신다(4-6절). 그 왕이 자신이 여호와께 받은 약속에 대해 전한다(7-9절). 시편 기자의 목소리로 패역한 왕들과 나라들에 경고한다(10-12절). 이 시는 '제왕 시' 또는 '메시아 시편'으로 분류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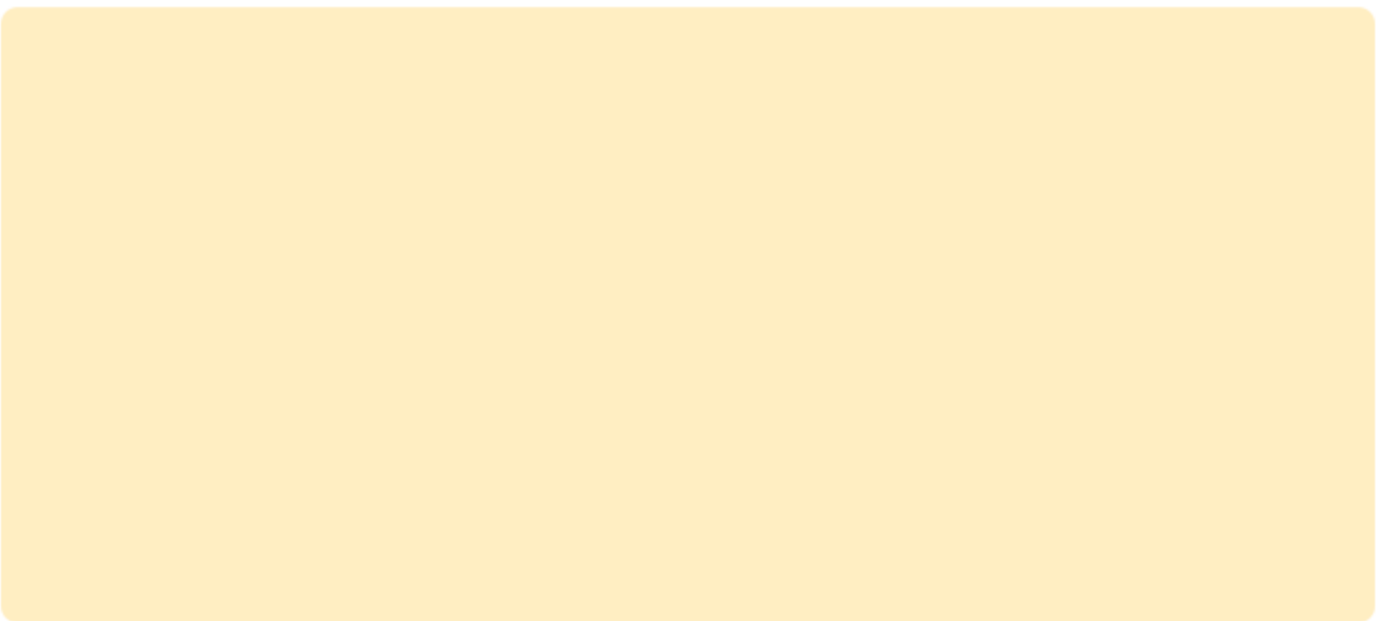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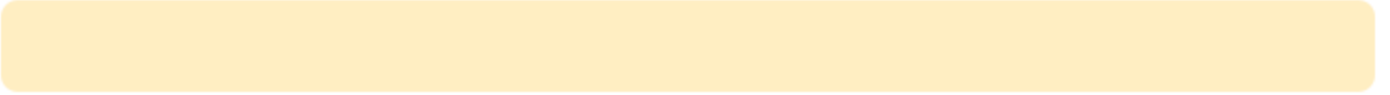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는데, 나는 어떤 방식으로 주님을 피난처(의지의 대상)로 삼고 있습니까?

〈설교 노트〉



〈설교 노트〉



13

월요일

주는 나의 방패시요

시편 3:1-8

새찬송가 183장

- 1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 2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 3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니이다
- 4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 5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으로다
- 6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 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 7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며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 8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본문설명

오늘 본문 시편 5편에는 표제어가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관악에 맞춘 노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5편의 시기에 대해서 여러 학자들은 시편 3편, 4편과 동일하게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에 지어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시편5편은 다윗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입니다.

다윗의 현 상황은 대적으로 둘러 싸여있습니다. (1절) 사람들의 비난과 조소를 받습니다 (2절) 하지만 3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방패이시고 영광이시자 그의 머리를 드시는 분입니다. 다윗은 잘 때이든 깰 때이든 하나님께서 자기를 붙드시며 천 만명이 나를 에워싸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일어나서 나를 구원하시고 모든 원수를 물리쳐달라고 기도합니다. 이러한 다윗의 기도는 위기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다윗의 심정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신은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하나님을 찾습니까?

14

화요일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시편 4:1-8

새찬송가 370장

- 1 내 의의 하나님이며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 2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셀라)
- 3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 4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셀라)
- 5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 6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 7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 8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말씀 암송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시편 4:8)



본문설명

오늘 본문은 시편 3편과 쌍을 이루어서, 3편이 '아침의 시편'이라면, 4편은 8절의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는 말씀에 근거하여 '저녁의 시편'이라고 불립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내 의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1절)이는 참담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압살롬의 쿠데타를 일으킨 세력들은 왕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다윗은 이 모든 일이 헛되며 거짓이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를 위한 모든 수고는 다 헛될 뿐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경건하신 자를 택하며 그의 기도를 들으실 꺼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그런 차원에서 보면 경건한 자입니다. 다윗은 의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원수들의 방식과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설명합니다. 그것은 바로 새포도주가 풍성할 때가 아닌 하나님이 마음에 주시는 기쁨입니다. 이러한 기쁨은 우리로 하여금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며 안전하게 하십니다.



당신은 밤중에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15

수요일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시편 5:1-12

새찬송가 338장

- 1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 2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며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 3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 4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 5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 6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 7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 8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 9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 10 하나님이며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 11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 12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 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말씀 암송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시편 5:7)



본문설명

다윗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고통 중에 다윗은 하나님께 자기의 심정을 헤아려 달라고 호소합니다. 다윗은 나의 왕으로 부르고 자기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요청합니다. 다윗은 당시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기보다 위에 계신 왕을 의지합니다. 참된 기도는 하나님의 하나님되심을 인정하면서 시작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죄악을 기뻐하지 않으며 죄를 멀리하는 분임을 기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자, 피흘리기를 즐기는 자 속이는 자, 신실함이 없는 자를 싫어하며 그 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다윗의 주변에는 이런 자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오직 자기 자신은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하고 예배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근거는 자기 자신의 의가 아니라 오직 주의 풍성한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만 주께 피하며 주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기쁨과 사랑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수록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보호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있습니까?

16

목요일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시편6:1-10

새찬송가 207장

- 1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 2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 3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 4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 5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스올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 6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 7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 8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 소리를 들으셨도다
- 9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음이어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 10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이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말씀 암송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욥31:23)



다윗의 참회

본 내용은 징계를 당하는 화자(다윗)가 영육이 떨리는 고통의 호소와 사죄를 간구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시는 다윗이 치명적인 죄를 범했던 밋세바와의 간음과 그녀의 남편이자 충성스런 신하였던 우리야를 죽게만든 사건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에 대한 슬픔으로 회개의 기도를 드렸으며 징계를 거두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기도를 들으실 하나님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징계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 할까요?

17

금요일

나의 방패는 하나님께 있도다

시편 7:1-17

새찬송가 446장

- 1 여호와 내 하나님이며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 2 견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 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 3 여호와 내 하나님이며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 4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 없이 빼앗았거든
- 5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셀라)
- 6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 7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 8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 9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 10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 11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심이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 12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심이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 13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심이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 14 악인이 죄악을 낳음이며 재앙을 배어 거짓을 낳았도다
- 15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듬이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 16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 17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함이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말씀 암송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시7:10)



하나님께 올리는 다윗의 청원

다윗의 시.

무고한 자신에게 고난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시는 자신의 고난만을 노래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의로우신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께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청원시입니다. 그리고 악인에 대한 저주 또한 담고 있습니다.

이 시는 후대에 유대인 부림절 축제 날 낭송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재판장이 되심을 기억하며 살고 있습니까?

18

토요일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시편 8:1-9

새찬송가 455장

- 1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 2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심이어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 3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 4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 5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 6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 7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 8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 9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말씀 암송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시8:9)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

이 시에 대한 배경이 언급되어 있지 않으나, 하나님의 다양한 창조물이 등장하는 것으로 미루어볼때 목동시절에 지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창조의 영화로움을 찬양하며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주권자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묵상하거나 느낀 경험이 있습니까?

19

주일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시편 9:1-20

새찬송가 435장

- 1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 2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 3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 4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 5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 6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 7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심이여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 8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심이여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 9 여호와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 10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 11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 12 피 흘림을 심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심이여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 13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 14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 15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짐이여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 16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음이여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었도다 (헝가리, 셀라)
- 17 악인들이 스올로 돌아감이여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 18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함이여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 19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 20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셀라)

말씀 암송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시 9:13)



공화를 구하는 기도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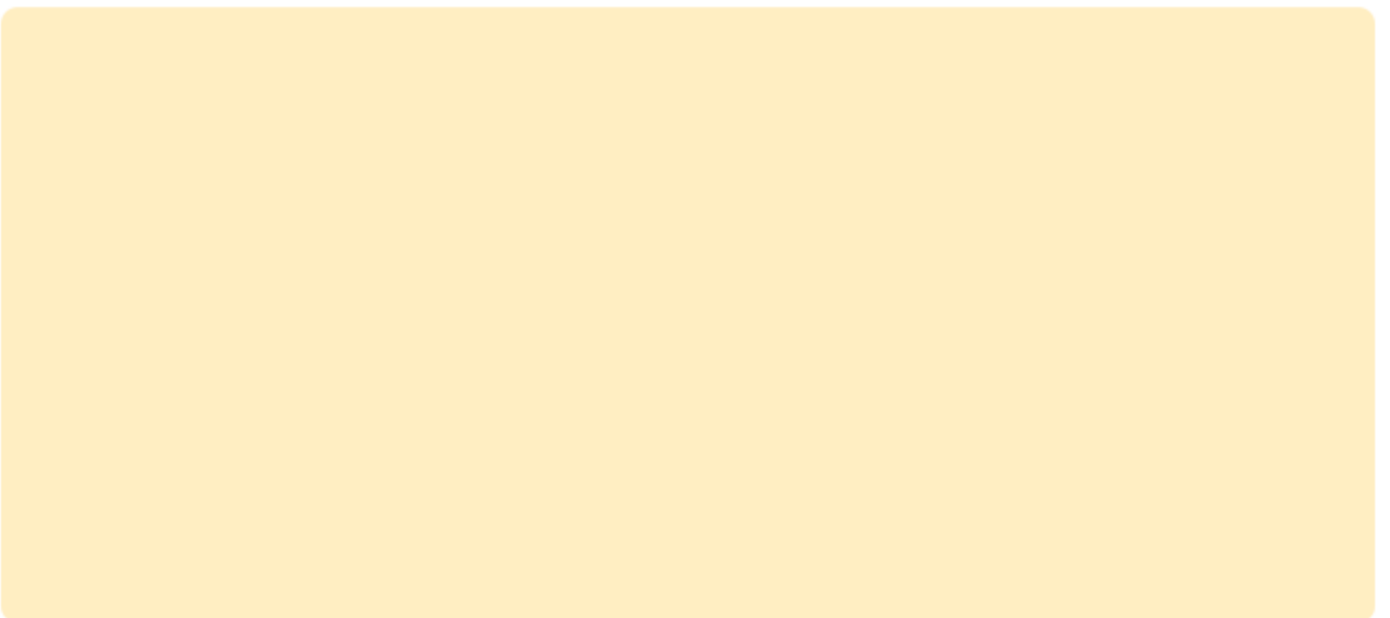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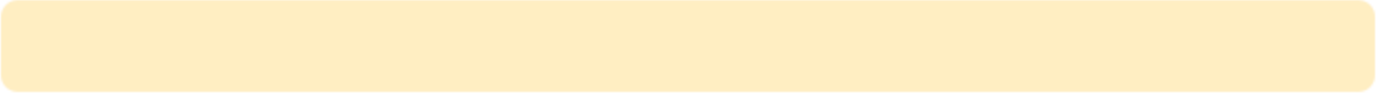
13절을 보면 시인은 타인의 압제로 인하여 사망의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얼마나 큰 미움을 받았는지 도저히 견디기 힘든 곤고한 상태에 자신이 처해 있다고 호소합니다. 그가 호소하는 대상은 그와 같은 고통에서 일으키실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의 호소는 곤고함 가운데 처한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인은 말하기를 그리하시면 주님의 찬송을 전하고 그 구원을 기뻐하겠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를 그분께 내어놓기를 바랍니다. 고통스런 그 상태 그대로를 그분께 내어놓으시기를 원합니다. 아플 땐 아프다고 하고, 슬픈 땐 슬프다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상태에 있는 자신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수렁에서 건져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정녕 우리 주님이 기뻐 받으실 기도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공화와 자비로 우리를 수렁해서 구해 주실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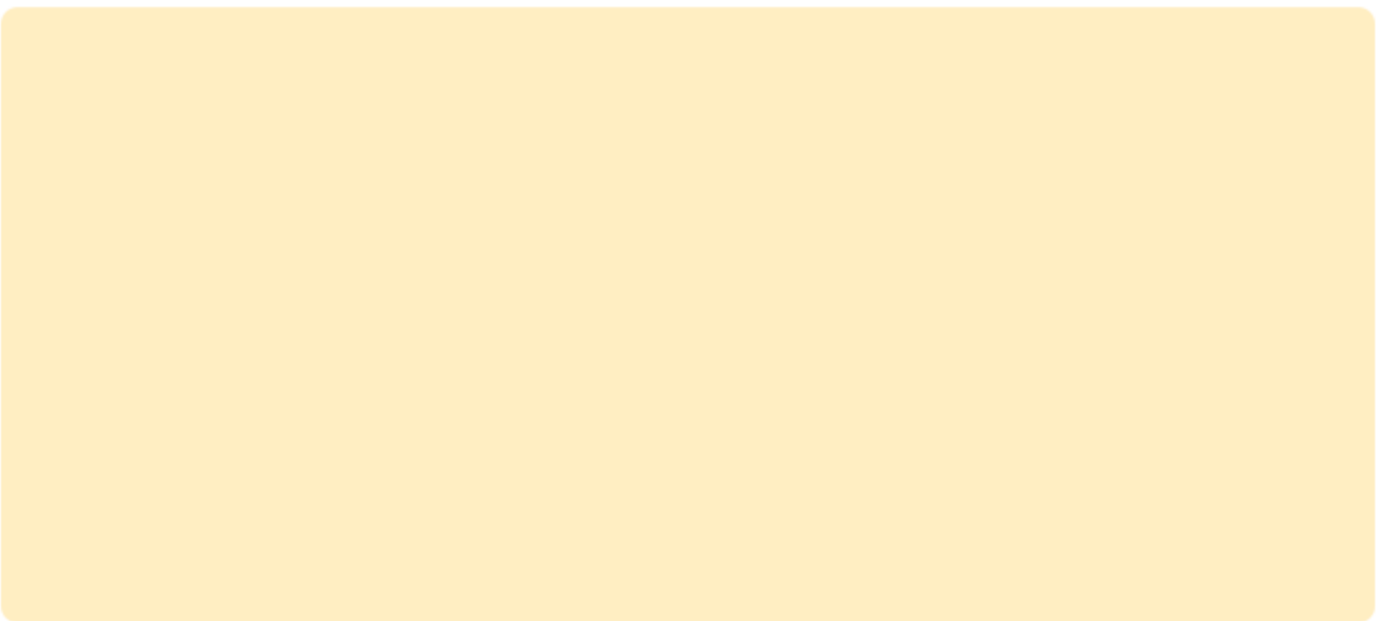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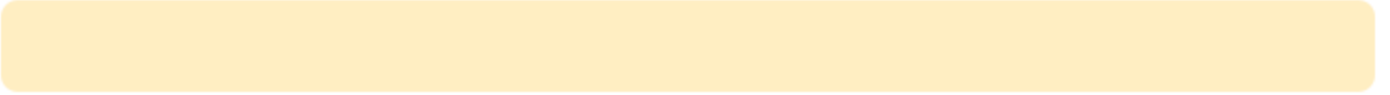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설교 노트〉



〈설교 노트〉



20

월요일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시편 10:1-18

새찬송가 365장

- 1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 2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 3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 4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은 없다 하나이다
- 5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 6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 7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 8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 9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엮드림 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엮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 10 그가 구푸려 엮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 11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 12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 13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 14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시니이다
- 15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 16 여호와께서는 영원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 17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 18 고아와 압제 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이 숨어 계신 것 같을 때

시인은 1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매우 답답한 심정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이렇게 하나님을 애타게 찾는 이유는 그가 환난을 만났는데도 하나님이 침묵하셨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평소에 그와 관계하던 그 하나님은 자신이 환난을 만났을 때 당연히 도우시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 반대였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자로 나타나지 않으셨을 뿐 아니라 숨어 계시기까지 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사실 우리에게 임한 환난을 우리와 함께 견디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환난 날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돌아보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 틀린 말입니다. 다만 시기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일 뿐입니다. 또한 그에게 필요한 환난이기에 하나님은 가슴이 아프지만 참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종종 자기 백성에게 숨어 계신 듯이 보일 때가 있지만 그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느낌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한시도 당신의 백성 곁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숨어 계신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었습니까?

21

화요일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뵈오리이다

시편 11:1-7

새찬송가 545장

- 1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 같이 네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 2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임이여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 3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 4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음이여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 5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 6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향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의 소득이 되리로다
- 7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뵈오리로다

말씀 암송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뵈오리로다
(시 11:7)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일을 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의로운 일을 좋아하십니다. 물론 의로운 일을 하는 성도들도 좋아하십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정직한 자는 하나님의 얼굴을 뵈올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뵈옵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여기에는 의로운 일을 하는 것은 성도의 의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니 그의 백성인 성도는 마땅히 의로운 일을 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당신을 기쁘게 하시는 자를 기쁘게 여기시며 축복하여 주십니다.

이처럼 성도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고민하며, 그 일을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고 실제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거짓임을 나타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항상 고민하고 노력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나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22

수요일

여호와여 도우소서

시편 12:1-8

새찬송가 364장

- 1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 2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함이며 아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 3 여호와께서 모든 아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 4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함이로다
- 5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놀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 6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며 흠 도가니에 일곱 번 단련한 은 같도다
- 7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 8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말씀 암송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롬5:3)



고난 중에도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성도

1절을 보면 다윗은 "여호와여 도우소서"라고 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고 있습니다. 그는 주변의 의로운 자들이 삶을 오래 살지 못하고 죽어가는 현실을 보면서, 경건한 자가 고통당하는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환난에 따라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첫째는 시험을 당하여 하나님을 등지고 배신합니다. 둘째는 환난이 닥쳐왔을 때 주님의 깊으신 뜻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께 가까이하여 귀한 열매를 맺습니다. 마치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도움을 말씀에서 찾았습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고,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엔 하나님의 보호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환난 가운데 있다면 더욱 예배하고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그 때 우리는 숨겨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고난에 있을 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게해준 말씀이 있습니까?

23

목요일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시편 13:1-6

새찬송가 445장

- 1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 2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 3 여호와 내 하나님이며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 4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 5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 6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말씀 암송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사도행전 1장 4절)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의 믿음을 단련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고통을 당하고 있었음에도 다윗을 잊은 듯이 침묵하고 계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를 간절히 소망하였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얼굴을 다윗에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믿음을 지키기란 쉽지 않습니다. 의심하고 흔들리고 회의에 빠지곤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3,4절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 구원을 간절히 호소하고, 5,6절에는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며 찬양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신앙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는 이런 상황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겨냈고, 침묵의 시간에 믿음과 인내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종종 우리를 향해 침묵하십니다. 그 기간은 우리가 알수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 시간을 통해 연단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성장하게 합니다. 고난 중에도 찬양했던 다윗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이 마치 침묵하던 때가 있었습니까? 그때 내가 얻은 신앙의 유익은 무엇입니까?

24

금요일

오직 여호와와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시편 14:1-7

새찬송가 540장

1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2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3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4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5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으로 다

6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와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7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말씀 암송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요한복음 3장 36절)



본문이해

패망에 이르게 하는 무신론

하나님이 없다고 외치는 무신론자들이 시편 14편 1절에 등장합니다. 성경은 이런 자들을 엄중히 경고하고 있으며 해악을 끼치다 결국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 말합니다. 이들의 가장 큰 위험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인생의 목적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심판과 절망으로 가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기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의 구원을 갈구할 수 없습니다. 인생의 목적을 모르기에 하나님의 선을 행할수도 없이 유리방황합니다. 무엇보다도 고난과 눈물 뿐인 세상에서 유한한 자기 힘만 의지하다 살다 쓸쓸히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양하며 피난처 되시는 그분 뒤에서 안전한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선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며 가치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빛나는 삶입니다.



적용질문

하나님을 부정하는 세상 속에서 나는 어떤 신앙을 지키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신앙은 나에게 어떤 즐거움과 행복을 주고 있습니까?

25

토요일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이까

시편 15:1-5

새찬송가 315장

- 1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이까
- 2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 3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 4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 5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 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말씀 암송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롬 8:7)



성도는 무엇보다 마음이 더러워지지 않게 조심해야 합니다.

2절에서 다윗은 마음에 진실을 말하는 자가 하나님의 장막과 성산에 거할 자격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보듯 다윗은 마음을 중요하게 말합니다. 다윗도 실수가 많고 부족한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 된 것은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 진실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마음의 중심을 관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정직하고 진실한 마음 하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주목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아무리 의인이라 말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스스로를 속이는 자라고 말씀 합니다(요일 1:8). 즉 아무리 의인이라고 하여도 죄를 짓지 않고 사는 사람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마음이 죄로 인해 더러워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죄가 결코 우리의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을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죄를 이기려고 노력해야 하며, 죄로부터 마음이 더러워지지 않도록 스스로를 지켜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성도란 죄를 짓지 않는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성도란 바로 죄로부터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우리는 마음이 죄로부터 물들지 않도록 스스로를 지키며 우리의 마음이 죄로 물드는 것을 방치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잠언 4장 23절에서도 말씀 합니다. "무릇 지키기 만한 것 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러한 교훈을 우리의 삶 속에서 행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성도로서 모든 삶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까? 마음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26

주일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 주소서

시편 16:1-11

새찬송가 369장

- 1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 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 2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 3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 4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 5 여호와와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 6 내게 줄로 재어 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음이여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 7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 8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시므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 9 이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하게 살리니
- 10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 11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총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말씀 암송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지요 (마10: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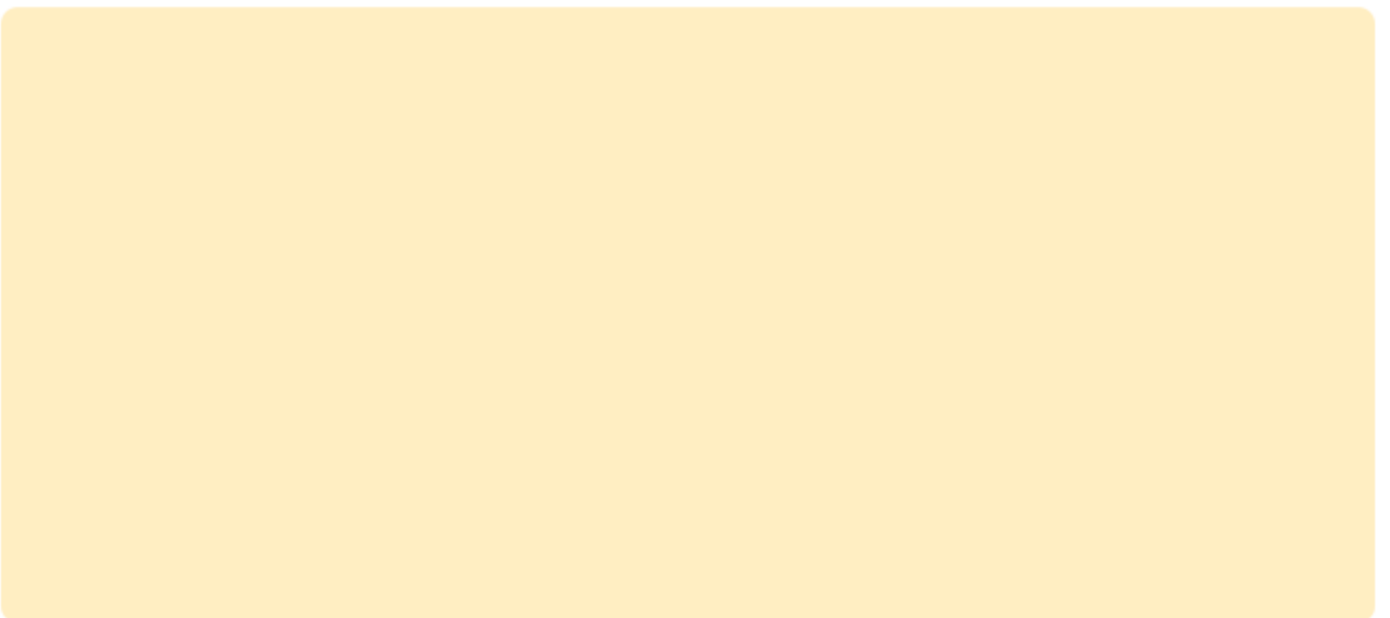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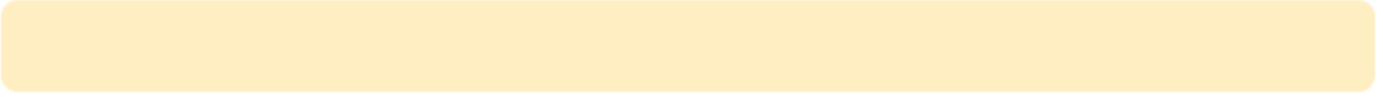
성도는 입술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해야 합니다.

2절을 보면 다윗은 '아뢰되'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는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께 자기의 주님이시며 자기의 복이라고 입술로 고백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다윗은 입술로 고백하는 신앙의 중요성을 미리 알고 노래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녀 관계에서 서로 사랑을 표현하고 고백하듯이 성도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동일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입술로 고백해야만 하나님과의 영적인 의사 소통이 비로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 때 하나님께서도 입으로 자신의 믿음을 표현하는 사람을 비로소 인정해 주시고 받아 들여 주십니다. 만약 성도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부끄러워 하고 감추고 싶어 한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인정하며 기뻐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로마서 10:9, 10절에서도 "네가 만일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고 말씀 하십니다. 그 만큼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중요한가를 말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고백이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든 상관 없습니다. 찬양과 기도와 삶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하며 사랑을 노래 한다면 하나님께서 충분히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사랑과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하나님을 향한 고백으로 채워 가시기를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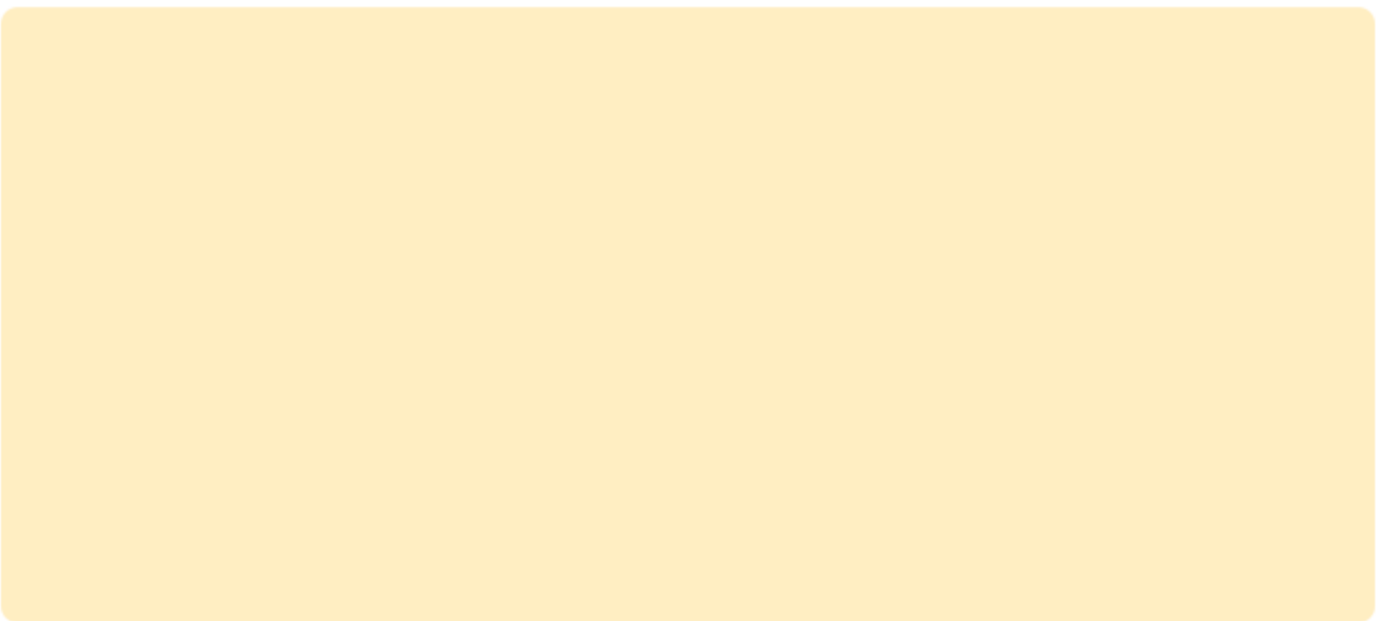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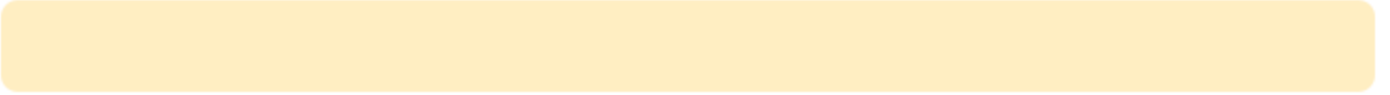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언제 고백하며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셨습니까?

〈설교 노트〉



〈설교 노트〉



27

월요일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시편 17:1-15

새찬송가 384장

- 1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 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 2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 3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 4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 5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 6 하나님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 7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 8 나를 눈동자 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 9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 10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 11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에워싸서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 12 그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엮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
- 13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 14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 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재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 주는 자니이다
- 15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뵈오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말씀 암송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경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대하 7:14)



하나님은 정직한 자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1절을 보면 다윗은 "여호와여 정직함을 들으소서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하소서 거짓되지 않은 입술에서 나오는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즉 다윗은 자기의 정직함에 근거하여 하나님께 자기의 기도를 듣도록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다윗은 자신의 정직함을 근거로 기도하고 있는 것일까요? 다윗은 다른 무엇보다도 자신의 정직함에 근거하여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정직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악인의 제사는 미워하고 정직한 자의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정직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악과 거짓을 미워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생과 같이 무엇이 부족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모든 것에서 충만하신 분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이 지으신 것입니다. 다윗은 범죄한 후에 회개하면서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 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51:17). 여기서 '상한 심령'이란 자기 죄를 정직하게 인정하고 고백하며 회개하는 심령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우리의 정직함을 근거로 하나님께 통회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항상 정직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28

화요일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시편 18:1-19

새찬송가 453장

- 1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 2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니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 3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 4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 5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 6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심이어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 7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으로다
- 8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요 그 불에 솟이 피었도다
- 9 그가 또 하늘을 드리우시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컴컴하도다
- 10 그룹을 타고 다니심이어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솟아오르셨도다
- 11 그가 흑암을 그의 숨는 곳으로 삼으사 장막 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심이어 곧 물의 흑암과 공중의 백백한 구름으로 그리하시도다
- 12 그 앞에 광채로 말미암아 백백한 구름이 지나며 우박과 솟불이 내리도다
- 13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렛소리를 내시고 지존하신 이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솟불을 내리시도다
- 14 그의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흠으심이어 많은 번개로 그들을 깨뜨리셨도다
- 15 이럴 때에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 밀이 드러나고 세상의 터가 나타났도다
- 16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심이어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 17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음이어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으로다
- 18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 19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시므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말씀 암송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시50:15)



성도가 당하는 환난의 날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구원의 날이기도 합니다

표제를 보면 다윗이 이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점을 '모든 원수와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 날'이라고 하였습니다. 시기적으로 이 시편이 기록된 때는 다윗의 말년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그의 생애를 기록하고 있는 사무엘서 전체를 통해서 생각해 볼 때 우리는 본 시에서 말하는 구원이 단순히 다윗의 생애 마지막이 되어서 경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다윗은 블레셋 사람 골리앗 앞에 선 전쟁터에서도, 사울에게서 위협을 받고 있을 때에도, 압살롬이나 세바의 반란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에도 항상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손길을 경험했습니다. 이런 모든 경험들을 통해서 다윗은 자기가 겪고 있는 환난의 날이 동시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구원의 날이라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환난과 고난의 순간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구체적인 구원의 날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다가 풀무불 같이 견딜 수 없는 시련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 가운데 우리가 홀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때 하나님은 우리 가장 가까이에 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부디 이러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으로 어떤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정의와 진리, 그분의 구원하심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견디기 힘든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신뢰하며 믿고 있습니까?



원주중부교회 새벽 QT

매일 만나

2023. 2

발행인 | 김미열

도운이 | 한성훈 최청환

| 안광모 이상호

| 박예일 김요한

| 송주원 손아론

| 신동재 김충만

발행처 | 원주중부교회

T : 033-744-2760 ~1,2

F : 033-744-2763

<http://wjjungbu.org>